

더 깊은 묵상

별수없는 쥐

인도의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고양이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하자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는 다시 그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수 없는 쥐다” 하며 다시 쥐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 코에 대한 조직검사가 있었습니다. 살을 때 낸 부위가 지혈이 되지 않아 4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담당 인턴이 최선을 다했고 친절했지만 경험이나 기술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밤새 피를 흘리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위축성 비염'이란 병명처럼 코 벽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갔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조여왔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용기가 났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며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처 - 당신의 인생에 창문이 있습니까? / 박도훈